

■ 이라크 피랍 생존 조종훈 목사가 본 '아프간 피랍 사건'

“전쟁·분쟁 등 위험지역 과도한 선교활동 삼가야”

“전쟁 중이거나 민족분쟁에 휘말려 있는 치안 부재 지역에서의 과도한 선교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4월 9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팔루자(al-Fallujah)에서 무장 세력에게 피랍됐다가 7시간 만에 풀려난 광주 생명교회 조종훈 목사(59·광주시 북구 문흥동)는 이번 ‘샘물교회 교인 아프간 피랍’ 사건도 결국은 안전을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농을 하며 “미국과 동맹국인 너희는 죽어야 된다”며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조 목사는 또 납치 장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화장실

정부 과잉대응 더 위험

은 물론 먹을거리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다행히 이들은 이라크 현지 출신 영국 BBC 방송기자의 노력으로 납치 7시간 만에 아무런 대가 없이 풀려났다.

조 목사는 “당시 우리 일행은 정부가 납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장 세력을 자극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다”며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도 피랍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반미국가 입국 신중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한곳인데다, 탈레반 등 회교 반군이 워낙 과격해 피랍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북음화 총연합회” 소속 목사 7명과 선교 활동을 벌이기 위해

이라크를 찾은 조 목사 일행은 당시 요르단에서 2대의 승합차에 4명씩 나눠탄 뒤 이라크 북부 모술(Mosul)지역으로 향하던 중 무장 세력에게 피랍됐다. 눈을 가린 채 납치당한 이들은 차량으로 30여 분간 이동한 뒤 9.91m(3평) 남짓 한 창고에 갇혔다. 반군들은 손 날로 목에 긁는 시

광주·전남 종교단체 해외 선교 ‘비상’

치안 불안한 곳 취소, 목적지 바뀌

해외 선교·봉사활동 등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지역 종교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아프간 피랍’ 사건을 계기로 종교가 다르거나, 내란 등으로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서의 활동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 A교회 청년회는 23일 아프가니스탄으로 회원 2명을 파견, 1~2주 동안 단기 선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아프간 피랍’ 사건 직후 취소했다. 회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년회는 대신 카자흐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꿨다.

서구 화정동 B교회 청소년 회원

30명과 선교사들은 당초 오는 30일부터 2주간 캄보디아로 선교활동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 정부가 총선을 치르면서, 기독교 선교 활동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선교활동을 중단시키거나 국외추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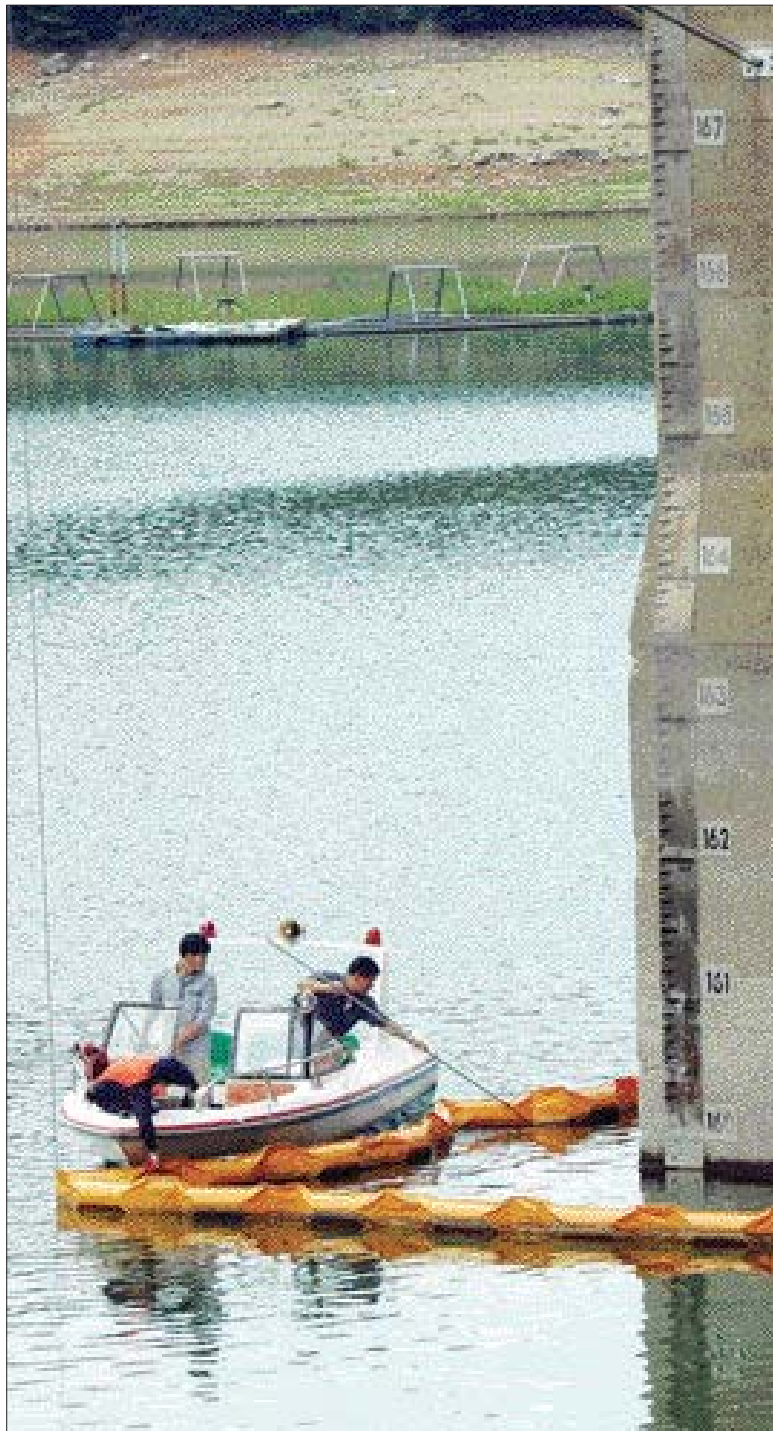
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달 7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케냐로 수양회(修養會)를 떠날 예정인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이하 UBF)는 현지에서 행어 일어날지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UBF는 ▲복장 화려하게 입

지 않기 ▲외출 시 무리 지어 다니기 ▲현지에서 돈 함부로 쓰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마련,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동구 C교회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과 필리핀에 지난 5월 선교활동을 하러 간 4명의 신도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남구 D교회 관계자는 “지나해 초 인도 뱅갈로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교인 3명이 헌투교 지도자 집에 들어가 선교활동 하다 종교법 위반으로 고소돼 3개월간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선교나 봉사활동에 앞서 현지 분위기 파악이 사전에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동북호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22일 광주시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취수탑 주변 펜스를 보강하고 있다.

적은 강수량에 수온·일조량 증가 동북호 조류 주의보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순군 동북호 유역에 ‘조류(藻類)주의보’가 발령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강수량 부족에 따른 저수율 저하로 동북호 유역에 조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일자로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가 m당 15~25mg에 달하고, 남조류 세포가 m당 500~5000마리를 초과하는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하면 발령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강수량 부족으로 동북호 저수율이 50%에 그친 데다 수온과 일조량 증가가 누적돼 우점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조류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동북호 중류 적벽 수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5m이하 심층수를 취수하고 정수처리 과정에서 활성탄을 투입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조류가 더 증가할 경우 24일 살조제를 살포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북호는 지난 2002년부터 조류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류주의보 발령은 200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녹차밭 관광버스 사고 승객 6명 부상

22일 오전 10시10분께 화순군 이양면 구례리 쌍봉사(雙峰寺) 앞 도로에서 서울 C관광 소속 서울 72다 11XX호 관광버스(운전자 이모·57·부천시 원미구)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39명의 승객 중 서모(여·49·서울)씨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운전자 이씨는 경찰에서 “보성 녹차 밭 관광을 마치고 답양 대나무 숲으로 이동하던 중 갖길 잔디밭에 앞 바퀴가 빠지면서 전신주와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어깨충돌 상대 폭행 의식불명에 빠트려

광주 북부경찰은 22일 길을 지나던 중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일용직 노동자 김모(34·경기도 부천시)씨를 중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2일 새벽 5시3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관리실 2층 화장실 계단에서 길을 지나던 중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후 달아나면서 신분증이 든 지갑을 현장에 놓고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268)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products including DS건설, KCC방호, and (주)본드나리.

5·18 고문 후유증 40대의 안타까운 방화



고문 후유증으로 2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5·18 부상자가 대낮 도로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입건.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조모(4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20분께 동구 대인동 L백화점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Advertisement for '광주광역시 중심특별관' with phone number 367-9000.

1.5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5분여 동안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1980년 5월 27일 서울에서 5·18 민중항쟁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도경비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이후 20여년 간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것.

○지난 1994년 뒤늦게 5·18 부상자로 인정된 조씨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며 항소수술.

○5·18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김씨처럼 뒤늦게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안타까운 5·18 관련자가 종종 있다”며 “이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아로나민 씨플러스' (Aronamin C Plus) featuring a smiling couple and product images. Text includes '여름엔 특히 아로나민 씨플러스 피로는 풀고 피부는 건강하게!' and '항산화제 보강'.